한라시론

김 장 환
전 광저우총영사

한·중수교 30주년 회고와 바람직한 미래를 생각해 본다

한·중국 양국은 1992. 8월 수교이후 30년 동안 무역, 투자, 인적교류 등 각 분야에서 폭넓은 관계 발전을 이룩했다. 상당기간 동안 경제적으로도 상호보완적인 요인들이 많아 무역과 투자가 대폭적으로 늘어나면서 아주 가까운 이웃나라로 발전해왔다. 그러나 지난 30년을 회고해 보면 양국관계는 부침의 연속이었다.

덩샤오핑의 개혁개방은 4개 현대화를 필두로 시작됐지만, 19세기 초 여러 중국학자들이 중국인들의 의식 속에 미흡하다고 주장했던 '민주'와 '과학' 정신에서 정치·사회의 현대화는 끝내 실현하지 못했다. 시진핑 주석은 2017년 경제발전을 토대로 어쩌면 과거 지향적인 중화민족의 부흥을 실현하겠다는 결의를 밝힌바 있다. 2035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건국100주년인 2049년에 사회주의 현대화강국이 되는 목표를 설정했다. 최근 년에는 목표달성을 위해 '중국제조 2025', '국가표준'을 발표해 새로운 세계표준을 만들려고 한다.

한·중 수교이후 발생한 갈등을 보면, 2003년 고구려사를 중국사에 편입하는 '동북공정',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사건에서 북한지지 및 2016년 사드배치시 중국의 보복조치와 현재까지 진행되는 한한령을 들 수 있고, 양국간 경제협력과 무역에서도 불공정이 노정돼왔다.

공산권국가의 행태를 보면, 당의 방침과 지도부의 지침을 위배할 수 없어 외교경로를 통한 협의는 한계가 있다. 한·중 관계는 중국공산당 지도부의 성향에 따라 부침을 해왔는데, 현재의 중국 지도층을 살펴보면 과거와 같은 협력과 상생은 기대하기 어렵다.

2017년 10월 문재인대통령의 방중을 성사시키기 위해 양국 외교부는 '3불'을 도출했고, 그 해 12월 당시 문재인대통령의 방중은 성사된 반면, 시진핑 주석의 답방은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한국인들이 중국의 실상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윤석열 정부는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과 '3불'에서 금기시하는 한·미·일 3국 군사관계를 발전시킬 의향과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6·30 나토 정상회담기간 중 개최된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위협에 대응하는 3국간 공조에 뜻을 모았다.

앞으로의 한·중 관계는 경직된 상황에서 전개될 것이다. 양국 간에는 국력의 비대칭성이 존재하고, 중화질서를 연상케 하는 중국의 강압적인 패권주의 자세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우리는 민주주의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동맹과 협력하는 가운데, 한·중 관계에서 협력공간을 찾아야한다.

아울러 중국의 대미 북한 핵·미사일카드 활용과 관계없이, 한반도에서 전쟁 재발은 제로섬게임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남북한을 포함해 미·중 등 주변국들이 인식하도록 하는 점도 숙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사설

경제 불평등 심화…지역경쟁력 '암초'다

도내 가계 순자산 규모가 커지면서 자산 불평등 수준도 전국 상위일만큼 심화됐다. 가계의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이 최근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실물자산 가격 상승에 힘입어 규모를 키웠고, 자산 불평등도 더 확대되는 결과를 낸 것이다. 제주가 이대로 가면 가계·직업간 위화감을 키우고, 지역 경쟁력 약화를 크게 걱정해야 할 판이다.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최근 낸 '제주 가계 순자산 규모와 자산격차 현황'을 보면 3월기준 가계 평균 순자산 4억9154만원을 기록, 전국 시도중 서울 다음 가장 높았다. 순자산 연평균 증가율도 2015년 3월서 올해까지 7년간 11.3%로 전국 6.4%의 거의 두배 높았다. 순자산 규모 증가는 각 가계·직업별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켜 문제다.

자산 불평등 수준을 보여주는 순자산 지니계수(GE)가 0.63이어서 서울(0.64) 다음으로 높았다. 몇 년간 도내 아파트 매매가격이 지역별 큰 편차로 실물자산 중심의 불평등을 확대시켜서다. 2019년 3월 도내 아파트 상위 20% 매매가격은 하위 20% 매매가격의 4.4배였다가 올 3월엔 5배로 가격차를 더 늘린 결과를 낸 것이다. 도내 자영업자의 자산 불평등 지수도 다수 영세한 현실에다 운영 규모별 수익성 큰 격차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자산 불평등 심화는 지역사회 '부익부 빈익빈' 가속으로 경제 불평등을 키우고, 성장 잠재력을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도정이 부동산 시장 안정, 취약계층 주거대책, 청년 자영업자 금융지원 확대 등에 적극 대응해야 할 때다.

렌터카로 여행기분 잡쳐서야 되겠는가

제주지역에서 렌터카를 둘러싼 불미스런 일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다른 지역의 렌터카들이 제주에서 영업을 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객자동자 운수사업법상 다른 지역에 등록된 차가 제주에서 영업하는 것은 불법이다. 렌터카 교통사고도 잇따르고 있다. 게다가 렌터카를 이용하는 소비자 피해 역시 제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2019~2021년)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 구제 신청 957건을 분석한 결과 제주가 전체의 44.1%(422건)를 차지했다. 서비스 형태가 유사한 '단기 렌터카'와 '카셰어링' 관련 접수(729건)로 한정할 경우 제주가 57.2%(417건)로 절반이 넘었다. 특히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 관련 263건 분석 결과 '수리비 과다 청구'가 55.9%(147건)로 가장 많았다. 또 사업자가 사고 경중을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면책금·자기부담금을 과다 청구하는 사례도 38.0%(100건)로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가 관광지여서 다른 지역보다 렌터카 관련 피해가 많을 것이다. 그렇다고 렌터카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에게 각종 피해를 부당하게 전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사고 관련 피해뿐만 아니라 '계약 관련 피해'도 45.1%(432건)로 상당히 많아서 그렇다. 들뜬 마음으로 제주를 찾은 관광객들이 이런 일을 당하면 여행기분을 잡칠 수 있잖은가. 렌터카 이미지가 훼손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나아가 관광제주의 이미지까지 흐려놓을 수 있는 만큼 렌터카 업계의 신뢰받는 고객 서비스를 거듭 촉구한다.

편집국 25시

갈등관리 주 '절반의 성공'

이 태 윤
정치부 차장
lty9456@ihalla.com

오영훈 제주지사가 연일 현장행보를 이어가며 도민들과의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지난주에는 도정의 주간 기조를 '갈등관리'로 설정해 서귀포시 강정마을과 제주시 월정마을을 잇따라 방문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하지만 갈등관리 주는 절반의 성공에 머무른 듯 하다.

지난주 갈등관리를 강조하며 현장 방문을 추진하던 오 지사는 갈등현장 첫번째 행보로 강정마을을 찾았다. 간담회를 열고 6개 협약과제 이행 등 다양한 방안 논의를 약속했다.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던 오 지사의 갈등 현장 행보는 월정리에서 반전됐다.

오 지사가 월정리 마을 방문한 뒤 제주도는 보도자료를 내고 주민 목소리를 경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월정리마을회 등은 입장문을 내고 일방적인 입장을 전달하러 왔다며 제주도를 저격했다. 한 침대에서 다른 꿈을 꾸는 동상이몽이었던 것이다.

또 갈등관리 주에서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과 관련한 일정은 잡히지 않아 의문이었다.

도는 제주 제2공항은 국책사업이라며 아직 국토부의 공식 입장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일정을 보류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성산지역에서는 여전히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책사업이기 전에 주민들이 갈등으로 인해 생긴 마음의 상처를 생각했더라면 보류보다는 면담이 먼저였다고 본다.

물론 오 지사의 소통 행보는 이제야 시작점이다. 향후 보다 많은 지역을 찾고 도민들과의 소통을 기대해 본다.

뉴스-in

국힘, 민선8기 개방형 인사 "아연실색"

청문회서 자질 검증 요청

○…제주도가 27일 정무부지사와 행정시장 임용 후보자를 공개한 가운데,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출범 초기 도정 안정과 산적한 현안에 대한 이해와 해결책을 내세울 수 있는 전문가를 주변에 두길 바랐던 다수 도민들의 기대를 저버린 인사라고 평가.

국민의힘 도당은 27일 논평을 내고 "정무부지사로 임명된 전직 도의원 등은 그동안 선거의 주요공신으로 중책을 맡길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했다"면서 "제주시 행정을 책임질 후보자가 변호사 업무 이외에는 행정이나 조직경영을 전혀 경험하지 않은 사람을 임명했다는데, 아연실색할 따름"이라고 비판.

그러면서 도의회에 인사청문회 과정서 후보자들의 도덕성 등 자질 검증 해줄 것을 요청. 이태윤기자

한웅 부시장 초인적 활동 귀감

○…서귀포시장 직무대리 한웅 부시장이 오는 8월 공로연수를 앞두고 일선 행정현장은 물론 체육·문화행사에 참가해 시민들과 대화를 나누며 종횡무진.

그는 지난 26일 제주도의회 예결위원회에서 공직생활 마무리 소회를 묻는 질문에 "가정에는 소홀했지만 도민을 위해 최선을 다했고, 열정을 갖고 공직생활을 했다"며 "마지막으로 서귀포시 추경 예산 반영을 의원님에게 부탁드린다"고 답변, 서귀포시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표출.

시 관계자는 "도청 회의 등 참가, 시정 현안 점검, 시민과의 소통에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초인적인 활동을 하며 시민과 동료 공직자에게 합리적이고 온화한 리더십의 표본으로 귀감을 사고 있다"고 칭찬. 백금탁기자

부 고

정상훈 어머니 연주현씨 정자(인순)(향년 88세)께서 서기 2022년 7월 27일 00시 27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22년 7월 28일(목요일)
▶발인일시: 2022년 7월 29일(금요일) 오전 8시
▶발인장소: 하귀농협장례식장 제302호 분향실
▶장 지: 양지공원

아 들 정상훈 며느리 채순병
딸 정미경 사 위 (故)고광훈
우영 고용완
손 자 정용기 손 부 홍기선
민기
외손자 고귀한 외손부 김민진
대로
민성
외손녀 고채연

※ 연락처 : 정상훈 010-5151-6700
정미경 010-9254-7536
정우영 010-2697-5990
고용완 010-4001-5991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른 성과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콜
미국식품의학회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 명인 / 2009 백도라지 명인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흘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방수전문건설업
석주개발
☎ 712-3644, 782-3644
010-4690-3636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그랜드 보청기
'청각 솔루션센터'
그랜드보청기 여름 무더위탈출 大 이벤트
※보청기와 관련된 궁금증 친절히 안내 드립니다.
그랜드보청기 히트브랜드 대상!!
충전형 귓속형 보청기
충전형 보청기
'국민건강을 위한 상생협력제품 판매'
제주시/서귀포시 무료 방문 A/S 및 무료 청력검사
삼춘들 혼저 전화 주십서! 기다렴수다!
◁사무실 방문시 추가 할인쿠폰 증정▷
비충전식 보청기 도내 최저가 지향
건강보험 청각장애인 지원금 및 어르신보청기 지원금 안내
NAVER에 그랜드보청기 를 검색해 주세요
☎ 064-725-9275
※그랜드보청기 전용 주차장 (무료주차)
서사라 사거리 북동쪽
시청방면 1층 삼겹구이 서광로 225 2층

리모델링의 선두주자
濟(제)州(주) 리모델링
辛(신) 一(일) 祚(조)
직원 수시모집
누수탐지·방수
누수탐지 : 가스식, 청진기식 수도배관 녹물청소
신축 / 증축 / 리모델링 / 화장실 리모델링
아파트 / 단독주택 전체 리모델링 / 지붕개량 /
옥상방수 / 페인트공사 / 창문 / 도어문 / 대문 교체
붙박이장 / 싱크대 / 신발장 / 도배 / 장판 / 몰딩 시공 / 징크 공사
유품 정리해드립니다
책임시공, A/S견적무료
정성을 다하는 직접시공. 혼을 담는 책임시공
주소 | 제주시 진동로5길 9, 유진빌라 201호
친절문의 064.742.6234
010.7599.6234